

## 배색방법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

강경자<sup>†</sup> · 최수경\*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 마산대학 뷰티케어학부\*

## The Effect of Coloration Type on the Image of Korean Dress's Wearer - on the Tone-in-Tone Coloration -

Kyung-Ja Kang<sup>†</sup> and Su-Kyung Choi\*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sup>†</sup>

Dept. of Beauty & Care, Masan College\*

(2005. 8. 1. 접수: 2005. 11. 12.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three clothing cues(jacket color, skirt color, and tone of dress) on female impressions.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are a set of stimuli and response scales. The Stimuli are 16 color pictures manipulated with three clothing cues by drawing. The 7-point scale designed for visual evaluation of female impression formation includes 24 bipolar adjectives. The subjects were 192 undergraduate female students in Jinju c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As analyzing the impression of female figure by the jacket color, skirt color, and tone, three factors including youth · activity, attractiveness, and visibility were identified. Among these factors, youth · activity and attractiveness were proved to be more important. Some interaction effects of clothing cues were found. Jacket color and ton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impression of visibility. The combination of skirt color and tone had significant effects on youth · activity, attractiveness, and visibility.

*Key words:* Korean dress(한복), tone-in-tone coloration(톤 인 톤 배색), image(이미지).

### 1. 서 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로 사회화 과정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서 얻은 여러 정보를 통합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지각하게 된다. 이 때 타인에게서 얻은 정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착용자의 외모와 함께 의복은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인간은 사

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의복은 단순히 외적인 표현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도구로서, 또 자기 표현의 도구로서 언어를 대신하여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복의 디자인 요소 중에서도 복식의 비적 인식에서 가장 먼저 지각되는 것이 색채이다. 색채는 가장 표현적인 요소로써 복식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복 선택에

<sup>†</sup> 교신저자 E-mail : kjkang@gsnu.ac.kr

있어서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복은 디자인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일 수 없고 색상과 톤을 중심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의복이므로 한복에 사용되는 색상이나 톤에 의한 배색방법은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한복 배색의 이미지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한복의 다양한 배색 방법이 시각적 형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혜원, 고애란<sup>1)</sup>, 이현화, 박찬부<sup>2,3)</sup>, 이해숙, 김계숙<sup>4,5)</sup> 등의 선행 연구들은 한복을 통한 색상 배색을 단서로 하여 이들 단서들이 인상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색과 다른 변인을 조합시키거나 색상의 배색만을 변인으로 하여 이미지나 인상형성 효과를 연구하였다. 색채 기획 시 톤이 중시되는 관점에서 보면 색상 조합만으로 색의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톤의 영향도 함께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복의 색상만이 아닌 톤에 따른 배색방법이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연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복의 색상과 톤에 의한 배색방법에 따라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먼저 선행 연구<sup>6)</sup>에서 배색방법의 한 유형인 치마저고리의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상·하의의 톤에 차이를 둔 톤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톤 온 톤 배색과는 반대로 치마·저고리의 톤은 비비드, 라이트, 달, 다크의 4가지로

상·하의를 동일하게 하고 상·하의의 색상에 차이를 둔 톤 온 톤 배색 즉 우리 전통 한복에서 많이 착용하는 저고리색인 노랑, 초록을 기준으로 치마색을 각각 유사색과 대비색이 되도록 조합한 후 이들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가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의미 미분 척도를 구성하여 그 요인 구조를 밝히고, 톤별로 저고리와 치마의 색상을 서로 다르게 조합시켜봄으로써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단서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상대방에 대한 인상을 형성할 때 어떤 단서를 사용하게 되고 상대방에게서 얻은 정보들은 어떻게 통합되어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일관성 있게 형성하게 되는가? Asch<sup>7)</sup>에 의해 시작된 이러한 접근은 날개의 여러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다. 즉 상호작용의 맥락에 의존하여 동일한 정보라도 동일한 사람에게 의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취급되어질 수 있어 하나의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종 인상은 각 정보들을 모두 합한 것 이상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개별적 부분들의 합보다도 더욱 영향력이 있게 된다. Gibbin & Schneider<sup>8)</sup>도 의복 상의와 하의의 조화에 대한 지각자의 인상은 상의나 하의 각각에

- 1) 강혜원, 고애란, “여자 한복의 인상 형성 연구-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외류학회지* 15권 2호 (1991), pp. 211-227.
- 2) 이현화, 박찬부, “의복 단서, 지각자 변인이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I)-의복 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권 (1997), pp. 313-332.
- 3) 이현화, 박찬부,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 한복 착용자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II)-지각자 변인을 중심으로-,” *복식* 37권 (1998), pp. 119-132.
- 4) 이해숙, 김계숙,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여자 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외류학회지* 22권 5호 (1998), pp. 597-606.
- 5) 이해숙, 김계숙,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2보)-여자 한복의 상·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외류학회지* 22권 8호 (1998), pp. 1052-1059.
- 6) 강경자, 임지영, “톤 온 톤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학회지* 13권 5호 (2005), pp. 632-645.
- 7) S. Asch,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1946), pp. 258-290.
- 8) K. Gibbin and A. Schneider, “Meaning of Garment : Relation between Impression of Outfit and Message carried by Its Component Garm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 Vol. 51 (1980), pp. 287-291.

대한 긍정적 인상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복에서의 색의 적용 범위는 다양하고 그 방법이나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형태인가에 앞서 첫 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색채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선형 연구자인 壁谷久代 등<sup>9)</sup>과 上野青一郎<sup>10)</sup>은 의복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가 다른 디자인 요소들보다 의복의 이미지 형성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의복 이미지는 의복이 전달해 주는 전반적인 느낌을 말한다. 이러한 느낌은 의복에 사용되는 단서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은소영 등<sup>11)</sup>은 의복색이 배색 연출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고 유사 배색은 무난하면서도 매력적인 느낌을 주며 액센트 배색은 대담하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고 하였다. 이주현<sup>12)</sup>의 연구에서는 슈트의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은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차미승<sup>13)</sup>은 실루엣과 색채 이미지의 관계 연구에서 의복색은 성숙성과 현시성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딱딱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는 의복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최수경, 강경자<sup>14)</sup>는 원피스 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의 변화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빨강, 파랑의 색상에 관계없이 비비드톤의 원피스 드레스는 강렬하고 화려하고 눈에 띄고 특이한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페일톤, 비비드톤 특히 페일톤이 온유성 이미지에 효과적이고 톤이 다크일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색상은 의복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한복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금기숙<sup>15)</sup>은 조선 복식의 색조화 방법상의 특징은

강렬한 보색 대비보다는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유사색 대부분이며, 명도가 낮은 색은 주로 치마에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원, 고애란<sup>16)</sup>은 저고리색을 연두색으로 고정했을 때 보색조화(연두/꽃분홍)가 유사색 조화(연두/초록)보다 더 현대적으로 지각된다고 하여 한복의 배색이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정삼호<sup>17)</sup>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 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 선호 간을 비교 연구한 결과 한복 저고리와 치마의 착용색은 순색을 높게 선호하여 전통적인 보색 대비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현화, 박찬부<sup>18)</sup>는 한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의미있는 영향요인이 색상 조화라고 하였다. 유사 조화의 의복은 선호·평가 요인에서, 대비 조화의 의복은 개성·주의집중성 요인과 젊음 요인의 인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치마색상은 개성·주의집중성, 젊음, 친화 요인의 인상에 영향을 미쳐서 색조화에서 넓은 면적의 색상이 의복의 전체 분위기와 성격을 결정한다는 강혜원, 고애란<sup>19)</sup>의 진술을 뒷받침하였다. 이혜숙, 김재숙<sup>20)</sup>은 한복 배색의 색조합에서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의 착용자는 현시적이며 우호적인 이미지를 주고, 빨강저고리에 노랑 치마, 남색 저고리에 빨강 치마의 한복 착용자는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녹색 저고리에 노랑 치마의 한복 착용자는 가장 자신감이 없고 무능력한 것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여 색의 성격이 일부 색조합에 강하게 지각되어 색 조합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명희<sup>21)</sup>는 노인 여성의 인상 형성 과정에서 한복 및 양장 차림의 관찰자의 영향과 상황에 따라 지각되

- 10) 上野青一郎, “衣服の嗜好に關する統系的 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卷 7戶 (1980), pp. 42-48.
- 11)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권 5호 (2002), pp. 715-726.
- 12) 이주현, “의복 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13) 차미승, “의복 형태와 색채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14) 최수경, 강경자, “색상과 톤, 스커트 폭·길이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의 인상 평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4호 (2004), pp. 447-454.
- 15) 금기숙, “조선복식미의 연구,” 복식 5권 (1990), pp. 167-183.
- 16) 강혜원, 고애란, “여자 한복의 인상 형성 연구 -디자인의 변형과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1991), pp. 211-227.
- 17) 정삼호,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18) 이현화, 박찬부, *Op. cit.*
- 19) 강혜원, 고애란, *Op. cit.*
- 20) 이혜숙, 김재숙, *Op. cit.*
- 21) 이명희, “노년여성의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 43권 (1999), pp. 187-202.

는 차이를 연구한 결과 분홍색과 옥색 한복은 능력·활동성, 현대성이 낮게 평가되어 난색의 적절한 배색이 능력있게 지각됨을 의미하였다. 강경자(2001, 2002)의 연구에서는 상·하 다른 색을 동일한 톤으로 조합한 경우 톤에 따라 조화감에서 차이를 보이고, 색상은 상·하 다르게 조합한 경우 조화감에 대한 지각 반응에서 개인이나 문화간에 차이를 보여 명도차가 조화감 평가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Juddy(1980)는 청년기의 여성들은 유사 배색을 선호하고 다음으로 단색을 선호한다고 하였고, 정삼호<sup>22)</sup>(1990)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의복 스타일에 따른 색채 및 배색 선호 간을 비교 연구한 결과 한복 저고리와 치마의 착용색은 순색을 높게 선호하여 전통적인 보색 대비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나 인상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은 각기 사용한 단서들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 정보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인 반응은 색상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색상은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단서가 되지만 색상을 어떻게 배색하는가하는 배색방법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치마·저고리의 톤은 동일하게 하고 치마의 색상과 저고리의 색상이 유사 배색이나 대비 배색으로 조합되어 상·하 색상 차이가 있을 때 즉 톤 인톤 배색이 될 때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선행 연구의 상·하 톤 차이가 있는 톤 온 톤 배색이 될 때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지각될 것으로 본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측정도구

#####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스타일은 선행 연구<sup>23)</sup>와 동일하게 치마, 저고리의 전통 한복을 착용한 여자의 모습으로 얼굴과 헤어스타일은 통제하였다.

한복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구성방법이며 배색 구성은 저고리의 깃과 고름색은 치마색과 동일하게 하고 저고리 색상은 다르게 하였으며 자수나

문양, 염색, 끝동 등은 없는 것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저고리 색상은 한국 고유의 전통 배색을 참고로 빨강 치마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 배색이 되는 노랑 저고리, 대비 배색이 되는 초록 저고리로 정하였다. 노랑 저고리의 유사 배색은 빨강 치마, 대비 배색은 보라 치마를, 초록 저고리의 유사 배색은 노랑 치마, 대비 배색은 빨강 치마로 하여 치마 색상은 모두 3가지 색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색상은 순색인 비비드(vivid)와 채도는 중간으로 통제시키고 명도에 변화를 준 라이트(light), 덜(dull), 다크(dark)의 4가지 톤으로 조작한 후 한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의 색상에 준하여 최종적으로 색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과 같다.

자극물 제작은 한복 착용자의 그림을 CAD system (4D-box 6800 Zun system)을 사용하여 한복 착용자의 그림을 scanning하여 이미지를 입력시킨 다음 선정된 색상을 치마·저고리에 각각 배색되도록 색상과 톤을 조작한 후 프린트 하였다.

최종 자극물은 저고리색 2가지(노랑, 초록), 저고리색에 대한 치마색 2가지(노랑 저고리의 유사색: 빨강, 대비색: 보라, 초록 저고리의 유사색: 노랑, 대비색: 빨강), 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를 조합하여 만든 총 16개(2×2×4)의 자극물이 제작되었다. 이 때 배경색은 흰색으로 통제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자극물의 변인 조작 내용은 <표 2>와 같다.

####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저고리색 2가지, 치마색 2가지, 톤 4가

<표 1> 색상과 톤의 명셀값

색상 톤	빨강 (Red)	노랑 (Yellow)	초록 (Green)	보라 (Purple)
비비드(Vivid)	5R4/14	5Y8.5/14	5G5/10	5P4/12
라이트(Light)	5R8/6	5Y8.5/6	5G8/4	5P8/4
덜(Dull)	5R5/6	5Y7/6	5G7/6	5P5/4
다크(Dark)	5R2/6	5Y3/4	5G3/4	5P2/4

22) 정삼호, *Op. cit.*

23) 강경자, *Op. cit.*

〈표 2〉 자극물의 조작분류

톤	저고리색	Y		G	
	치마색	R (S, 유사)	P (C, 대비)	Y (S, 유사)	R (C, 대비)
Vivid(V)		YSV	YCV	GSV	GCV
Light(L)		YSL	YCL	GSL	GCL
Dull(D)		YSD	YCD	GSD	GCD
Dark(K)		YSK	YCK	GSK	GCK

Y: 노랑, G: 초록, R: 빨강, P: 보라.

지의 3원 요인 설계로 이루어졌다. 총 16개의 자극물을 16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각 실험조합별 피험자 수는 12명씩 피험자간(between subject)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되었다.

### 3) 의미 미분 척도

의미 미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의복과 이미지에 관한 선행 연구들<sup>24-28)</sup>에서 사용된 형용사쌍과 색상과 톤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10쌍의 형용사쌍을 추가하여 총 40쌍의 형용사쌍이 수집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의복의 배색과 톤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24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극물 속의 착용자 이미지를 측정하는 의미 미분 척도는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 극단의 긍정적 형용사에 7점, 우측 극단의 부정적 형용사에 1점을 주어 자료를 수량화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피험자는 진주 시내에 거주하는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와 가정교육과 여대생 1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는 2003년 9월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의 변화에 따라 한복 착용자가 주는 이미지의 요인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하였다. 각 이미지 차원별로 용어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24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92$ 로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 있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이미지 요인들 즉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6, .91, .84로 나타났다. 한복의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이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독립변인 간의 유의적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보조적 분석으로 MCA(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한복의 톤 인 톤 배색에 의한 이미지차원 분석

톤 인 톤배색으로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에 변화를 준 16개의 자극물에 대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하여 24개의 형용사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해 요인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에서 아이겐 값이 1.0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쌍들이 3개의 요인으로 묶이어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는 젊음·활동성, 품위성, 현시성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39.1%로 4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밝은-어두운, 경쾌한-중후한, 발랄한-점잖은, 어려보이는-나이드어 보이는, 귀여운-성숙한, 가벼운-무거운, 산뜻한-칙칙한, 즐거운-우울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동적인-정적인, 화려한-수수한, 시원한-담담한, 눈에 띄는-무난한이 포함된 13개의 형용사쌍들로 구성되어 배색으로 인상 형성을 연구한 선행 연구<sup>29)</sup>의 활동성 요

24) 강혜원, 고애란, *Op. cit.*

25) 이현화, 박찬부, *Op. cit.*

26) 이혜숙, 김제숙, *Op. cit.*

27) 김윤경, 강경자,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3/4호 (2003), p. 399.

28) 최수경, 강경자,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학회지* 11권 4호 (2003), p. 466.

29) 이명희,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2002), p. 508.

〈표 3〉 톤 인 톤 배색에 의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

	요인 1. 젊음·활동성	요인 2. 매력성	요인 3. 현시성	공통성 ( $R^2$ )
밝은-어두운	.917	.106	-.086	.860
경쾌한-중후한	.904	.067	-.040	.823
발랄한-점잖은	.900	.055	-.005	.813
어려보이는-나이들어 보이는	.897	.130	-.056	.825
귀여운-성숙한	.844	.112	-.114	.738
가벼운-무거운	.842	-.079	-.142	.735
산뜻한-취척한	.839	.306	-.122	.813
즐거운-우울한	.796	.323	-.004	.738
활동적인-비활동적인	.766	-.088	.119	.608
동적인-정적인	.759	-.042	.113	.591
화려한-수수한	.744	.118	.241	.625
시원한-답답한	.717	.222	-.004	.564
눈에 띄는-무난한	.716	-.038	.297	.603
조화된-조화되지 않은	.138	.813	-.093	.688
우아한-천박한	-.150	.804	.007	.669
자연스러운-어색한	.150	.803	-.154	.692
좋아하는-싫어하는	.309	.761	-.088	.682
세련된-촌스러운	.326	.753	.085	.681
안정된-불안정한	-.209	.733	-.147	.602
멋있는-멋없는	.328	.731	.130	.659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198	.712	-.068	.551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354	.657	.020	.558
강한-약한	-.088	-.048	.906	.831
강렬한-은은한	.108	-.150	.885	.817
고유치	9.376	5.460	1.927	16.763
전체 변량의 %	39.1	22.8	8.0	69.9
공통 변량의 %	55.9	32.6	11.5	100.0

인, 이현화, 박찬부<sup>30)</sup>의 연구에서 젊음 요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젊음·활동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는 22.8%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조화된-조화되지 않은, 우아한-천박한, 자연스러운-어색한, 좋아하는-싫어하는, 세련된-촌스러운, 안정된-불안정한,

30) 이현화, 박찬부, *Op. cit.*

멋있는-멋없는, 깔끔한-깔끔하지 않은, 지적인-지적이지 않은의 형용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는 한복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연구한 이해숙, 김재숙<sup>31)</sup>의 매력·평가성 요인과 의복 스타일과 색상, 톤 조합을 단서로 연구한 김윤경, 강경자<sup>32)</sup>의 매력성 요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강한-약한, 강렬한-은은한의 형용사들로 구성되어 전체 변량에 대해 8.0%의 설명력을 나타내었으며, 의복의 색상과 톤을 연구한 최수경, 강경자<sup>33)</sup>의 주의집중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나 현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회귀 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 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젊음·활동성 요인에서는 밝고 발랄하고 동적이고 경쾌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매력성 요인에서는 세련되고 멋있고 우아하고 지적인 것으로, 현시성 요인에서는 강하고 강렬한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3개의 인상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9.9%로 나타났고, 이중 젊음·활동성, 매력성 요인이 86%를 차지하여 이 두 요인이 톤 인 톤 배색에 대한 한복 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2. 저고리색, 치마색, 치마·저고리의 톤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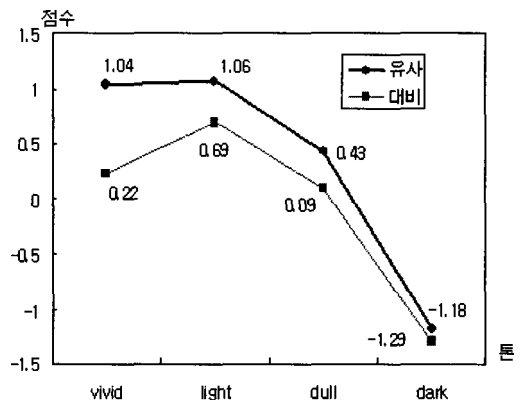
저고리색과 치마색, 톤의 세가지 단서들이 한복 착용자의 3가지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3원변량분석 및 MCA를 실시하여 인상 차원 별로 고찰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량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한복의 저고리색을 제외한 치마색, 톤은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단서들이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지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주 효과를 보면 단서인 저고리색은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치마색은 젊음·활동성 요인에, 톤은 젊음·활동성, 매력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리색, 치마색, 톤의 세가지 단서들 간의 유의적인 상

호작용효과를 <그림 1~4>로 설명하고, 이를 이미지 차원별로 설명하였다.

**1) 젊음·활동성 차원**

<표 4>에서 보면 저고리색을 제외한 치마색과 톤은 한복 착용자의 젊음·활동성 차원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톤은 두드러진 단서인 것으로 나타나 한복 착용자의 젊음·활동성 차원의 이미지를 지각할 때 치마, 저고리 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MCA 평균값 차를 비교해 보면 저고리색은 노랑일 때 치마와의 배색은 유사배색이고 톤은 라이트, 비비드, 덜 순으로 가장 밝고 경쾌하고 동적이고 귀엽고 화려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또한 치마 배색과 톤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젊음·활동성 이미지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독립변인 중에서 젊음·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치마색과 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치마색과 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치마·저고리색의 톤에 따라 배색방법 간에는 젊음·활동성에 대한 이미지가 비교적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치마, 저고리의 톤이 다크일 때를 제외하고는 비비드, 라이트, 덜톤에서는 치마와 저고리의 배색 방법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젊음·활동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젊고 밝고 귀엽고 산뜻하



<그림 1> 젊음·활동성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치마 색과 톤간의 상호작용 효과.

31) 이해숙, 김재숙, *Op. cit.*  
 32) 김윤경, 강경자, *Op. cit.*  
 33) 최수경, 강경자, *Op. cit.*

〈표 4〉 돈 인 톤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변량원		요인		젊음·활동성		매력성		현시성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F값	평균	자승합
주 호 과	저고리색(A)		.171	.540	.038	.046	.403	.503	
	치마색(B)		6.150	19.418**	4.186	4.979*	2.365	2.952	
	톤(C)		40.388	127.518**	.581	.691	4.335	5.411**	
2원 상호 작용	A×B		.001	.002	.003	.004	2.171	2.709	
	A×C		.675	2.132	.678	.807	3.015	3.764*	
	B×C		1.015	3.205*	2.573	3.061*	5.520	6.890**	
3원 상호 작용	A×B×C		.306	.967	3.164	3.763*	.798	.996	
M C A	변인	수준	편차	eta	편차	eta	편차	eta	
	저고리색	노랑	.03		.01		-.05		
		초록	-.03	.03	-.01	.02	.05	.05	
	치마색	유사색	.19		-.16		.12		
		대비색	-.18	.18	.15	.16	-.11	.12	
	톤	비비드	.52		-.15		.27		
		라이트	.76		.03		-.37		
		덜	.15		.12		-.19		
		다크	-1.34	.81	.02	.10	.24	.28	
	Multiple R			.834		.194		.302	
Multiple R <sup>2</sup>			.695		.038		.091		

\* $p < .05$  \*\* $p < .01$ .

고 화려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주고, 치마와 저고리의 배색이 대비배색일 때 보다 유사배색일 때 이러한 이미지는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치마, 저고리의 돈이 비비드일 때 배색방법 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다크톤일 경우는 부정적인 즉 중후하고 성숙하고 우물하고 칙칙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지각되어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배색방법간에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치마와 저고리는 비비드, 라이트, 덜톤으로 하는 것이 젊음·활동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고 다크톤은 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피스드레스의 스커트 폭이 동일한 경우 톤에 따라서 능력·활동성 이미지의 정도가 다르게 지각됨을 나타낸 최수경, 강경자<sup>34)</sup>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 착용자의 젊음·활동적인 이미지는 톤에 의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매력성 차원

매력성 차원을 〈표 4〉에서 치마색만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고, 치마색과 톤은 상호작용하여 매력성

34) 최수경, 강경자, *Op. cit.*



이미지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MCA 평균값 차를 비교해 보면 저고리 색은 노랑인 경우에, 치마색은 대비 배색이고 톤은 닳톤일 때 가장 조화되고 세련되고 우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대의 젊은이들은 강렬한 대비보다 유사 조화의 은은한 의복을 더 세련되고 멋있고 품위있다고 보고한 이현화, 박찬부<sup>35)</sup>의 연구결과와 다소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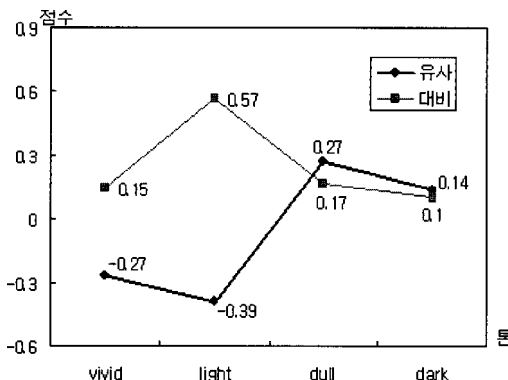
매력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치마색과 톤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비비드톤 및 라이트톤과 치마 배색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복색의 톤에 따라 저고리색과 치마색의 배색 방법간에 매력있는 이미지는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마, 저고리의 톤이 비비드일 경우는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방법간에 이미지 차이가 크지 않지만 톤이 라이트일 때는 배색 방법간에 이미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배색 방법이 대비 배색일 경우는 톤 변화에 관계없이 조화되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깔끔하고 멋있고 지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특히 치마·저고리의 톤을 라이트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치마, 저고리 톤이 밝고 선명한 비비드, 라이트톤과 어두운 톤인 닳, 다크톤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이 대비 배색일 경우 톤에 따른 매력성 이미지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에 유사 배색일 경우에는 톤에 따른 매력성 이미지가 크게 차이를 보

여 다소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을 대비 배색으로 할 때는 4가지 톤 중 어떤 톤의 배색이라도 조화되고 세련되고 안정되고 멋있고 깔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중 라이트톤의 배색이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반면에 저고리와 치마의 색을 유사 배색으로 할 경우는 어두운 톤인 닳, 다크로 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밝은 톤인 라이트나 선명한 비비드톤은 어색하고 촌스럽고 불안정하고 멋없는 것으로 지각되어 동일한 톤도 치마·저고리를 배색하는 방법에 따라, 동일한 배색도 어떤 톤이냐에 따라 즉 배색되는 색상과 톤에 따라 매력적인 이미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치마·저고리의 배색방법과 톤이 상호작용하여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매력성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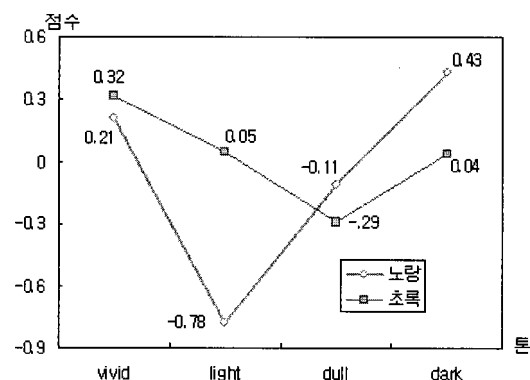
3) 현시성 차원

현시성 차원을 <표 4>에서 보면 톤만이 주 효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고리색과 치마색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저고리색과 치마색은 톤과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A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저고리색은 초록일 때 그리고 치마색은 유사 배색이고 톤은 비비드, 다크톤일 때 가장 강렬하고 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먼저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저고리색과 톤간의 상호 작용효과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한복



<그림 2> 매력성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치마색과 톤간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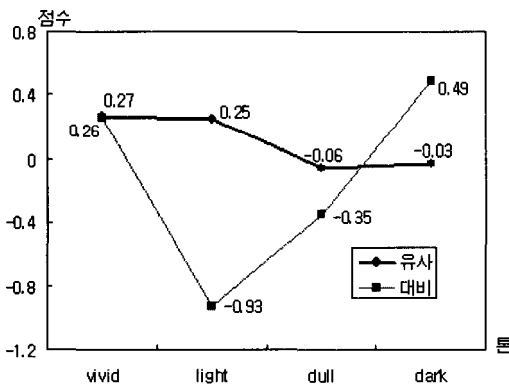


<그림 3> 현시성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저고리색과 톤간의 상호작용 효과.

35) 이현화, 박찬부, *Op. cit.*

색의 톤에 따라 저고리색상 간에 현시성에 대한 이미지는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저고리색이 노랑일 경우 한복색의 톤에 따른 현시성 차원의 이미지 차이가 큰 반면에 초록일 경우는 톤에 따른 현시성 이미지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과 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면 한복색의 톤이 선명한 비비드일 경우 저고리 색상 간의 이미지차이가 크지 않지만 밝은 라이트톤일 때는 색상간의 인상 차이가 크게 나타나 저고리의 색상에 관계없이 비비드톤일 때는 강하고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라이트톤일 때 초록과는 반대로 노랑 저고리는 현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반면에 어두운 다크톤일 때는 노랑, 초록 모두 색상에 관계없이 현시성이 낮아 약하고 은은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비비드톤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저고리색이 초록일 때 더 강하게 나타났다. 어두운 톤인 다크톤일 때 저고리색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다투는 반대로 현시적인 이미지로 지각되고 이러한 이미지는 저고리색이 초록보다 노랑일 때보다 더 강하게 지각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복의 톤은 독립된 요인으로만 지각되지 않고 저고리색과 상호작용하여 동일한 저고리색도 한복의 톤에 따라 현시적인 이미지로 지각되는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시성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치마색과 톤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그림 4> 현시성 이미지 차원에 미치는 치마색과 톤 간의 상호작용 효과.

치마색이 유사 배색인 경우 톤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는 크지 않지만 대비 배색인 경우는 톤 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여 비비드톤과 다크톤에서는 긍정적으로, 라이트톤과 다투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저고리색과 톤의 상호작용 효과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복의 색상뿐만 아니라 톤에 따라 현시적인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된다는 선행 연구<sup>36)</sup>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비비드톤 및 라이트톤과 치마색 간의 상호작용을 보면 치마색이 저고리색과 대비이고 라이트톤일 때 가장 은은하고 약한 이미지로 지각된 반면 치마·저고리의 배색이 유사할 때는 톤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강렬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또한 치마·저고리의 배색에 관계없이 대체로 한복색의 톤에 따라 저고리색과 치마의 배색방법 간에 현시성에 대한 이미지는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고리와 치마색이 유사 배색일 때는 한복색의 톤에 따른 현시성에 대한 이미지 차이는 대비 배색일 때와 다소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유사 배색의 한복이 비비드, 라이트톤일 때 강한 이미지를 주고 다투, 다크톤은 다소 은은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톤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대비 배색의 한복이 다투, 비비드톤일 때는 현시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라이트, 다투일 때는 현시적 이미지가 부정적이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라이트톤 한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저고리와 치마의 배색이 유사 배색이든 대비 배색이든 간에 동일한 배색 방법도 톤에 따라 현시적인 이미지에서 차이를 보여 저고리색이나 치마색이 독립된 요인으로 지각되지는 않지만 톤과 상호작용하여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하여 저고리색, 치마색, 톤의 변화가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24쌍의 형용사쌍을 요인분석하여 이미지 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이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어떻게 조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36) 김윤경, 강경자, *Op. cit.*

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돈 인 돈 배색으로 하여 저고리색, 치마색, 툰에 따른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차원을 요인분석한 결과 젊음·활동성 요인, 매력성 요인, 현시성 요인의 3개 차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 요인 중 젊음·활동성 요인과 매력성 요인이 중요한 차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툰 인 툰 배색으로 하여 저고리색, 치마색, 툰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젊음·활동성 차원의 이미지에는 치마색과 툰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툰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치마색과 툰 간에는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각각의 툰에서 저고리와 치마 배색이 유사 배색인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유사, 대비 배색이 모두 동일하게 툰에 따라 일관성 있는 차의 방향을 보여 치마색에 관계없이 라이트툰인 경우 가장 활동적인 인상으로 나타난 반면 다크툰인 경우 가장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어둡고 정적이고 부거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매력성 차원의 인상에는 치마색만이 주 효과로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툰과 상호작용하여 매력성 인상 차원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치마색과 툰간의 상호작용으로 저고리와 치마 배색이 대비 배색이고 라이트툰인 경우 가장 세련되고 멋있고 좋아하는 것으로, 유사 배색이고 라이트툰인 경우 가장 촌스럽고 멋없고 싫어하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배색 방법에 관계없이 덜, 다크툰일 때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다.

현시성 차원의 이미지에는 툰만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저고리색과 치마색은 툰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지각단계에서 통합되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저고리색과 툰의 상호작용으로 저고리색이 노랑이고 툰이 라이트나 덜툰일 때 특히 라이트툰인 경우 가장 약하고 은은하게 평가된 반면 비비드나 다크툰 특히 다크툰인 경우는 가장 강

하고 강렬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또한 저고리색에 관계없이 비비드툰은 현실적인 이미지를 주는 반면 덜툰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치마색과 툰간의 상호작용은 전체적으로 치마 배색이 유사 배색인 경우 비비드, 라이트 툰은 강렬한 이미지로, 덜, 다크툰은 다소 은은한 이미지로 지각되고 대비 배색인 경우 비비드툰과 다크툰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라이트툰에서 부정적으로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단서 중 치마색과 툰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치마·저고리의 툰은 치마색, 또는 저고리색과 상호작용으로 지각단계에서 이들 정보들이 통합되어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치마나 저고리의 색상은 단독으로 작용될 때와 다르게 되고, 이들 단서들의 조합 상태에 따라 그 이미지 차원이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하의 조화에 대한 지각자의 인상은 상의나 하의 각각에 대한 인상과 다를 수 있다고 한 Gibbin & Schneider<sup>37)</sup>의 견해를 지지하고, 인상형성시 정보들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를 설명한 형태주의적 접근이론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툰 온 툰 배색이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 연구와 비교해 보면 상·하 툰에 변화를 준 툰 온 툰 배색이 5가지 이미지 차원으로 구성되던 비해 툰 인 툰 배색은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이미지 연출에는 툰 인 툰보다 툰 온 툰 배색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하 툰 차이 즉 명도차가 있는 배색이 이미지 창출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가지 배색방법 모두 치마와 저고리의 색상이나 툰의 조합상태가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기존의 연구들은 색상 배색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의류업체에서 색채 기획시 색상보다 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sup>38)</sup>는 전체에서 보면 본 연구는 한복의 색상 배색만이 아닌 툰을 관련시켜 한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고, 의류업체에서 색채 기획 시 한복은 물론

37) K. Gibbin and A. Schneider, *Op. cit.*

38) 김영인, 조민정, "국내 패션 의류업체의 활용 색채 전달 도구 개발을 위한 색채 연구," *복식* 50권 4호 (2000), pp. 53-61.

의복색의 배색에 관한 자료 제시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자극물로 선 그림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인체에 직접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의 차이는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한복의 저고리색과 치마색을 톤 인 톤 배색으로 통제 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색상 외에 명도나 채도는 물론 재질, 무늬, 상황 그리고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색상이나 배색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강의실에서 이루어지고 평가자도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평가 되었으므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령층에 따라 이미지 판단의 기준이 다를 것으로 예측되어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I) -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권 4호.
-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연구(II) -톤온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 강경자, 임지영 (2005). “톤온톤 배색이 한복착용자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3권 5호.
- 강혜원, 고애란 (1991). “여자한복의 인상형성연구 -디자인의 변화와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권 2호.
- 금기숙 (1990). “조선복식미의 연구.” *복식* 14권.
- 김영인, 조민경 (2000). “국내 패션의류업계의 활용 색채전달도구 개발을 위한 색채연구.” *복식* 50권 4호.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권 3/4호.
-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2002).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 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권 5호.
- 이명희 (1999). “노년여성의 한복 및 양장 착용과 관찰자의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 43권.
- 이명희 (2002). “상황, 의복 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6권 3/4호.
-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현, 조공호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 이주현, 강혜원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Dress 및 Pants, Blouse의 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6호.
- 이현화, 박찬부 (1997).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 -의복 단서를 중심으로-.” *복식* 32권.
- 이현화, 박찬부 (1998). “의복단서, 지각자변인이 여자한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II) -지각자 변인을 중심으로-.” *복식* 37권.
- 이혜숙 (1999). “복식무늬가 현복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무늬 종류, 형태, 배열의 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3권 7호.
- 이혜숙, 김계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1보) -여자 저고리·치마를 중심으로 한 준실험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권 5호.
- 이혜숙, 김계숙 (1998). “복식색과 색조합의 이미지 지각(제2보) -여자 한복의 상·하 색조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권 8호.
- 정삼호 (1990).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 디자인 선호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수경, 강경자 (2003). “원피스드레스의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의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4호.
- 최수경, 강경자 (2004). “색상과 톤, 스커트 폭·길이에 따른 원피스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평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4호.
- 한국공업진흥청 (1991). *실용한국표준색표집*. 서울: KBS 한국색채연구소.
- 壁谷久代, 加藤雪枝, 檜山藤子 (1980). “被服に對する

- 色彩と圓形の知覺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卷 8戶.
- 石塚純子, 加藤雪枝, 槍山藤子 (1987). “各種デザインにおける服裝イメージ.” *日本家庭學會志* 42卷 50戶.
- 上野清一郎 (1980). “衣服の嗜好に關る統系的研究.” *纖維製品消費科學志* 21卷 7戶.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41.
- Gibbin, K. and A. Schneider (1980). “Meaning of Garment : Relation between Impression of Outfit and Message carried by Its Component Garm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 Vol. 51.
- Juddy, W, A. Joyce and R. Margaret (1980). “Clothing Color Preference of Adolescent Females.” *Home Economics Reearch Journal* Vol. 9.
- Winakor, G. and R. Navarro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5.